

# 북촌우물가

Andong Presbyterian Church News Letter

2009년 4월호

통권 제 190호



대한예수교  
장로회

안동교회  
ANDONG PRESBYTERIAN CHURCH

## 3월 교우소식

### 새 가족

- ♣ 백병기·오금숙(308구역),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 현대아이파크 303-1303호.
- ♣ 반나영(309구역), 용인시 수지구 벽산(아) 208-1402호.
- ♣ 고성애(103구역), 종로구 익선동 34 종로비즈웰오피시텔 728호.
- ♣ 김정숙(305구역), 송파구 잠실7동 아시아선수촌(아) 4-1102 ☎413-3993 (강명준장로최명자권사 인도)
- ♣ 조기수·이금재(103구역), 종로구 안국동 133 ☎ 720-9850
- ♣ 김순희(104구역), 종로구 삼청동 35-211 ☎ 017-242-8209 (최서섭권사 인도)
- ♣ 김영재(108구역), 종로구 누상동 147-12 ☎ 010-2222-9070(강신자권사 인도)
- ♣ 안경진, 조상원(106구역), 종로구 계동 140-99 ☎ 010-2024-7214

### 감 사

- ☞ 오원표집사·김효수권사, 22일(주일) 점심식사 제공
- ☞ 강명준장로·최명자권사, 8일(주일) 점심식사제공.
- ☞ 무명씨들 - 백주년을 기념하여 떡 3가마 지역 사회 주민들에게 기증.

### 입 원

- ♣ 조복심집사, 을지병원 9202호.
- ♣ 이춘우권사, 한일병원 308호.
- ♣ 김영한권사, 대전을지병원 외과 중환자실.

### 별 세

- ☞ 고 최명옥권사 (82세, 갈희선권사 모친), 15일(주일) 별세 17일(화) 장례.

### 이 사

- ☞ 이종의·오순원집사, 은평구 불광1동 633번지 현대 흥타운 104-1402호
- ☞ 최재왕집사·김신기교우, 송파구 잠실동 22번지 리센츠(아) 261동 2601호
- ☞ 임석태·윤혜원집사, 파주시 교하읍 동패리 신동아 패밀리에(아)1105-803호 ☎ 031-947-7925

### 축 하

- ♣ 김선영집사(이승신집사 부군), 기아자동차 유럽총괄법인장으로 승진발령, 독일 프랑크푸르트로 이사.

### 성경 필사

- ♣ 김병진집사, 신구약성경 3권 완필
- ♣ 강석문집사, 신구약 성경 완필(영어)

## 안동어린이집 입학식

유승희 교사

약간은 쌀쌀하지만 햇살이 따스했던 2009년 3월 2일 월요일 오전 11시 안동어린이집 강당에서 황영태 목사님을 모시고 제 16회 안동어린이집 입학식이 있었습니다.



2년여 동안 수고해주셨던 강영옥 원장님이 퇴임하시고 의욕 충만한 이충희 원장님과 유선경, 김수경 교사가 새로 부임하여 “하나님 안에서 누림 꿈, 친구들 안에서 나눔꿈, 세계를 품는 꿈”의 원훈을 가지고 은혜, 사랑, 소망, 화평, 믿음, 기쁨의 6반의 담임교사와 조리사님과 함께 41명의 아이들이 입학하였습니다. 안동어린이집은 보육과 교육을 중심으로 학부모님들의 요구에 귀 기울여 보다 안전하고 행복한 어린이집을 만들어 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로구 타 어린이집보다 외국인 아이들이 많이 다니고 있는데, 외국인 아이들은 우리의 문화를 체험하고, 우리나라 아이들은 나와는 다른 친구들의 모습을 배우는 교육의 장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입학식 후 신입 아이들의 적응기간을 지나 현재는 새로 입학한 아이들을 포함하여 아이들과 교사들이 함께 즐거운 어린이집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 중보기도팀 & 안동전도대 수련회

권혜순 권사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측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더욱 귀하신 나의 주님

십자가 고통 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중보기도팀과 안동전도대는 수련회를 위하여 2009년 3월 5일(목) 오전 9시 50분 교회를 출발하여 영락기도원에 도착하여, 10시 25분에 찬송가 79장(주 하나님 아름다운 세계)을 부르면서 수련회를 시작하였습니다. 아직 봄의 푸른 잎은 없으나 봄기운으로 아늑한 영락기도원 204호실의 창문에서 보이는 자연은 찬송시 그대로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는 참으로 아름다웠고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우리는 마음껏 찬양하였습니다. 안재훈 목사님의 기도와 통성기도로 이어져서, 찬송가 79장의 3절 4절을 또 불렀습니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안종혁 목사님의 말씀 (“나는 하느님께 화가 난다”)에서 우리가 얼마나 형식적인 기도를 하고 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화를 내고, 불평하고, 오해를 하기보다 자신을 솔직하게 자신의 화를, 분노를, 불평을 모든 세세한 감정들을 기도 안에서, 기도 속에서 성육신하신 주님께 아뢰어야 합니다. 자신의 깊숙한 속에 자신도 알지 못했던 두려움, 분함, 갈등, 오해 등을 기도 안에서, 기도 속에서 주님과 함께 풀어 가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10편, 누가복음 19:15~21을 같이 읽었습니다. 은 열 므나 비유에서 왕에 대한 오해를 풀지 않은 그래서 게으름에서 벗어나지 못한 악한 종의 결과도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다윗 왕처럼, 예레미야처럼, 욥처럼 자신의 암담함과 억울함을 주님께 기도 안에서, 기도 속에서 솔직하게 하나님께 아뢰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 후에는 묵상의 시간을 갖고 자신을 위해 기록하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삶에서의 평화를 얻어야 합니다. 12시에는 맛있는 점心和 준비해왔고 온 간식을 하고 1시부터 찬송과 통성기도를 3시까지 하였습니다. 봄을 재촉하는 비를 보면서 한 팀은 이춘우 권사님을 뵈러, 다른 한 팀은 교회로 잘 돌아왔습니다. 예수님 부활을 준비하며 40일 동안을 예수

님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는 사순절기에 이 곳 기도원에서 바쁜 생활을 다 내려놓고 온 우리 안동교회 교우님들과 함께 수련회를 할 수 있어서 더욱 은혜가 되었습니다. 오늘의 중보기도팀 및 안동전도대 수련회를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중고등부 소식

지난 15일에는 예배 중에 '수험생을 위한 기도'를 드리는 순서를 통하여 고3 친구들을 격려하고 위로하였다. 구체적으로, 고3 수험생이 대표로 먼저 기도의 문을 열었고 이어서 후배들과 교사들이 기도에 동참했다. 또한 교사들이 찬양으로 고3 학생들을 위로하였다. 또한 29일에는 김에녹 선생의 인도로 뜨거운 찬양을 드리면서 평소와는 다른 형태로 찬양예배를 드렸다. 이후에는 올해 처음 시행하는 통합 분반공부를 하였다. 통합분반 공부의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일시: 3월부터 매월 마지막 주

(3개월 단위로 진행)

▷방식: 첫째 달-고등부 전체 분반공부

(담당:지도목사)

중등부 자치회 및 친교(담당:총무교사)

둘째 달-고등부 자치회 및 친교(담당:총무교사)

중등부 전체 분반공부(담당:지도목사)

셋째 달-중고등부 연합 친교

홈페이지에 있는 좋은 글 소개

### 『읽낭소리』를 보고

최선희

맑은 영혼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소로 인해 흐르기 시작한 눈물은 하늘이 주신 인간 본연의 모습 그대로, 순결한 모습 그대로인 그분들 앞에 죄의 속성이 만연해 있는 세상 사람들과 그 속에서 헤어날 수 없는 저 자신에 대한 연민으로 눈물이 멈추질 않았습니다. 천국으로 가는 길을 가르쳐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물질만능주의 삶에서 보자면, 많은 소 값을 주지 않는다고 소를 팔지 않은 것으로 생각하겠지만, "500만원 아니면 안 팔아~" 할아버지가 아는 최고 가치의 숫자라는 생각이 들고 욕심 없는 할아버지

가 역설적으로 보였습니다. 자신에게는 가장 소중한 그 소의 가치를 몰라주는 세상에 말할 수 없는 것이라 느껴졌습니다. 더 이상 돌보며 함께 살아가기 힘들더라도 차마 그런 세상에 말할 수 없는. 소도 울

고, 할아버지도 울고, 보는 우리들도 울어야 하는, 평생을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고달픈 인생 여정속에서 그 누구도 선택하기 어려운 길을 묵묵히 가고 있는 그분들의 모습은 감동을 넘어선 하나의 메시지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로마서 2:13~14) 잠깐 동안 또는 어느 기간 동안에 역경을 이긴 사람들과는 다른 단 생각을 하게 됩니다. 상생이니 윈윈이니 말들만 많은 세상에서 함께 사는 것이 무엇인지, 사람의 역할이 무엇인지, 뒤돌아 생각하게 됩니다. 소를 보며 느낀 것 많지만, 할아버지 또한 선택의 자유가 있는 인간으로 그 길을 선택하셨다는 것이, 그저 남들이 그런 방식으로 살 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사는 것과는 다른 편리함이 문명의 이기가 코앞에서 유혹함에도 흔들리지 않는 것은 맘먹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평생 그렇게 산다는 것은 결코 맘먹었다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할머니도 소가 하고 싶은 말 일지도 모르는 불평을 하면서도 순응하며 살고 계신 모습이 어머니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아마도 꾸며진, 만들어진 이야기라면 그저 며칠 동안 가슴을 아리는 감동으로 그치겠지만, 나의 앞길에 영혼의 지침서가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분들을 오염되지 않게 지켜주시길 기도합니다.

## 사진으로 보는 100주년 기념행사



▶ 100주년 기념 촬영(전교인)



▶ 100주년기념 특강 시리즈(1)

## 구역장 수련회

2009년도 구역모임을 시작하면서, 구역장과 권찰들이 국수리에 있는 제자훈련원으로 구역장 수련회를 다녀왔습니다.



원장님이신 송신호 목사님과 함께 성경 한 절 한 절 찾아가면서, 참석한 구역장, 권찰들이 새롭게 말씀의 깊이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에 감동을 받았다.

## 유치부 3월 이야기

김현진

유치부에서는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나의 가장 귀한 보물! 예수님의 십자가!” 라는 주제 아래 여러 활동을 하였다. 첫째 주에는 “나의 보물은 예수님의 십자가” 라는 설교 말씀을 들은 후, 유치부 예배실 구석구석 숨겨진 보물들을 찾았다. ♡(하트)가 그려진 보물과 †(십자가)가 그려진 보물 중에 †(십자가)를 찾는 친구들이 우승하는 것이었다. 보물을 찾는 유치부 어린이들의 적극적

이고 발랄한 모습은 교육관을 들썩이게 했다. 이 활동으로 유치부 어린이들은 진정한 보물이 예수님의 십자가임을 다시 한 번 깨달을 수 있는 좋은 경험을 했다. 셋째 주에는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어요.” 라는 설교를 듣고 그것을 내면화하기 위한 표적 맞추기 놀이를 하였다. 십자가 표적에 자신의 죄를 담은 공을 던져 맞추는 놀이였다. 이 게임은 자신의 죄를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어 맡긴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 어린이들은 이 게임을 통하여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것을 몸으로 익힐 수 있는 시간을 보냈다. 넷째 주에는 “죄인들의 친구, 예수님” 에 대한 설교를 들은 후, 사랑의 사탕 나르기 게임을 하였다. 죄인인 우리와 친구 되어 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우리도 친구들과 한 마음으로 사랑하게 되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게임이었다. 두 어린이가 한 조각 되어 손을 꼭 잡고, 사탕을 떨어뜨리지 않고 일정한 거리에 있는 점시에 옮겨 담는 것인데, 빨리 들어오는 팀이 우승팀이 되는 것이다. 스피드에 관심을 갖느라 중간에 사탕을 떨어뜨리는 친구들도 있었고, 잘 옮기고 싶어 조심조심 하느라 속도가 느린 친구들도 있었다. 각자 특성에 맞게 열심히 하는 모습들이 예뻐다. 게임이 끝나고 나서는 옮겨진 사탕과 초콜릿 등을 친구들과 사이좋게 나눠 먹으며 마무리 지었다. 우리 어린이들 마음속에, 함께 사탕을 나르면서 친구에 대한 배려를 배우고, 함께 사탕을 나눠 먹으며 친구에 대한 사랑을 배우는 귀한 시간이었길 기대해 본다.

설교 말씀을 듣는 것에만 그치지 않고 게임 활동으로 체험하면서 익히니, 어린이들에게 더 잘 기억될 수 있으리라 여겨진다. 사순절 기간, 예수

님과 십자가의 의미를 알게 된 유치부 어린이들이 이번 부활절에 두 배의 기쁨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맞이할 수 있길 소망한다.

## 총회·연합회·교계 소식

### 한국교회 양성평등 정책문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각 교단과 교회들이 활용할 수 있는 '한국교회 양성평등 정책문서'를 배포했다. 한국교회 양성평등 정책문서는 교회협 양성평등위원회가 제안하고 제57회 총회에서 채택된 것으로 이번에 배포된 문서는 23페이지 분량의 한글과 영문 자료로 구성돼 있다.

1부 양성평등 정책의 필요성에서는 양성평등의 개념을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조건에서 인권을 존중받고 자아 실현의 잠재력을 개발하여 함께 성장하고 그 결과를 같이 누리는 것이며, 양성평등은 여성과 남성이 서로 상대에 대한 배려와 지원을 함으로써 상호 발전과 상호 만족을 얻도록 도와주는 것'으로 정의하며, 시대의 변화에 따라 교회도 적절한 준비와 대응책을 마련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2부 성서적 접근에서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음을 강조하며, 사람이 인종, 성별, 연령, 계급의 차이 때문에 차별되는 것은 창조주의 뜻에 어긋난다고 밝히고 있다.

; 교육, 제도, 예산으로 나누어진 분야별 3부 분야별 정책안에서는 △교회의 정책 결정 과정의 여성 참여를 보장하는 여성 할당제의 법제화 △교단 총회 산하 각 위원회 여성 비율 30% 의무화 △교단 총회 여성 총대 30% 포함 법제화 △장로 선출시 여성장로 30% 선출 의무화 △여성 부목사 청빙 등의 제도 개혁을 제안하며, 교단들이 양성평등위원회를 설치하고 양성평등주일, 양성평등 교육 등에 적절한 예산을 배정하고 추진해 나갈 것을 요청하고 있다.

## WCC 중앙위원회 스튜워드 모집

세계교회협의회(WCC)가 오는 8월 26일부터 9월 2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중앙위원회에서 에큐메니칼 선교의 경형을 쌓고자 하는 젊은 스튜워드(steward)를 모집한다. WCC의 사업을 모니터링하고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마련되는 이번 중앙위원회는 교회 대표와 지도자 등 세계 각국에서 1백50여 명의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이게 되며, 선발된 스튜워드들은 예배와 회의, 기록, 보도, 음향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며 에큐메니칼 운동과 교회 연합을 위한 노력들을 체험하게 된다.

모집 연령은 18~30세이며, 오는 31일 까지 WCC 홈페이지([www.ecumenicalyouth.org](http://www.ecumenicalyouth.org))에서 신청양식을 다운받아 지원할 수 있다.

## 미국 기독교 인구 감소세

미국 기독교 인구가 급속히 감소하고 있다고 재미 한인 기독교 신문인 크리스찬투데이가 코네티컷주 하트포드 소재 트리니티대학에서 실시된 미국인종교성향조사(ARIS, American Religious Identification Survey) 자료를 근거로 보도했다.

이 조사에 따르면 지난 2008년 현재 미국의 기독교인은 전체인구 중 76%로, 1990년의 86%, 2001년의 77%에 비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종교를 믿지 않는 무신론자는 1990년의 8.2%에서 15%로 크게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무신론자가 가장 많은 지역은 버몬트주로 지난해 현재 34%에 달하는 것으로 들어났다. 또한 이러한 감소 현상에 대해 이번 조사는 침례교, 감리교, 루터교회 등 주요 교단들의 성인 신자의 수가 2001년 17%에서 지난해 12.9%로 크게 줄어든 것을 주된 원인으로 지적했으며, 1990년 19.3%를 기록하며 미국 사회의 주류로 분류됐던 침례교인 역시 15.8%로 크게 감소했다고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일상생활에서 미치는 종교의 영향력도 줄어 신혼부부의 30%가 종교적 결혼 의식을 치르지 않았으며, 27%는 종교적 장례의식을 원하

지 않는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이번 조사에서 가톨릭 신자의 비율은 1990년의 25%에서 1% 정도 떨어진 24%로 조사됐으며, 특정 교단에 소속돼 있지 않은 초교파 기독교인이라고 응답한 사람도 0.1%에서 3.5%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990년 11만여 명을 대상으로 처음 시행된 미국인 종교성향조사는 지난 2001년과 지난해에 5만여명의 성인들을 대상으로 재 실시 됐으며, 조사에 참가한 대학 관계자는 "현재 미국인들의 종교에 대한 관념은 헌신의 대상에서 일종의 유행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말하며, 이러한 변화의 원인을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불신 등 교회에 대한 여러 부정적 의식들의 결과로 분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 캠퍼스 이단 '적색주의보'

우리 사회의 위기감이 예사롭지 않다. 위기의 순간 교회가 감당하여야 할 사명은 참으로 크건만 교회 역시 만만찮은 도전에 직면해 있다. 포스트 모더니즘과 다원주의의 발흥으로 정통교회와 신앙에 대한 도전과 소비문화 범람에 따른 몰신주의가 교회마저 휩쓸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이단의 발흥을 조장하고 있다. 이단들은 사회문화적 위기 속에서 불안감을 느끼는 현대인들을 거짓 영성으로 미혹하고 있는데 특히 내일의 한국사회를 이끌어갈 주역들이 교육받고 있는 대학캠퍼스에서도 목격되고 있다. 우리의 위기감은 학원복음화협의회의 '신학기 캠퍼스 이단주의보'로 구체적으로 확인됐다.

우리가 특별히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단주의보에 주목한다. 첫째, 사이비 이단들은 정통교인들을 미혹한다. 불신자보다는 주로 정통교인들을 포섭 대상으로 삼아 왔는데 한국교회와 사회의 미래인 자녀들이 악한 영의 위협 아래 노출돼 있음은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둘째, 군선교와 함께 한국교회 선교의 주된 현장인 캠퍼스가 위기상황에 처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셋째, 사이비 이단들은 캠퍼스 선교만이 아니라 정통교회의 사회선교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 이들이 일으키는 사회적 물의에 대한 책임과 비난이 고스란히 정통교회로 돌아온다. 일반인들은 정통교회와 사이비

이단을 구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모두를 한 부류로 간주해 버리며, 사이비 이단이 야기한 문제의 책임을 정통교회에 묻는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신앙인들과 교회는 책임 있는 대안을 모색하고 실천하여야 한다. 무엇보다도 지도자들은 오늘의 위기를 통하여 이단 사이비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 체계적 연구와 복음 변증, 선포의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사이비 이단 연구에 힘쓰고 있는 단체와 개인들에 대한 지원과 연대를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둘째로 교회는 우리 젊은이들이 사이비종교의 유혹에 빠져들지 않도록 잘 인도하여야 한다. 오늘의 위기를 기회로 삼아 캠퍼스 선교사역에 힘쓰는 단체들과 교회 사이의 협력 관계를 더욱 강화하여 선교역량을 최대화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근본적 차원에서 교회는 사이비종교가 일어날 수 있는 사회문화적 불안요소를 제거하는 사회통합에 적극 참여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교회 내부의 모순들을 개혁하는 데도 박차를 가하여야 한다. 교회 분열을 비롯해 계층화, 계도화, 신학 부재, 신학교의 난립 등이 갱신되지 않는다면 사이비 종교의 근절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 '에딘버러' 1백주년 대회 "협력"

'에딘버러 선교대회 2010' 준비위원장 앤드류 앤더슨 목사와 발리아 목사 등 관계자들이 본교단 총회를 방문해 협력을 요청했다. 이들 관계자들은 지난 25일 본교단 총회를 방문해 사무총장 조성기목사와 환담하고 한국교회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을 요청했다. 앤더슨과 발리아 목사 등 방문자들은 에딘버러선교대회 1백주년 기념대회를 설명하고 "한국교회가 자신을 증명해 보이는 계기로 삼아달라"고 말했다. 이들은 한국교회가 진정으로, 전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발리아 목사는 "기존의 세계 에큐메니칼 운동 관계자들 뿐만 아니라 오순절교회 등 복음주의 관계자들이 함께 하는 일인만큼 본교단 총회의 능동적인 협력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사무총장 조성기목사는 "1910년 당시 한국 장로교회와 감리교회가 에딘버러선교대회에 대표를 파송할만큼 한국교회와 에딘버러선교대회가 깊은 관

계에 있다"고 말하고 "2010년 대회에도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교회협과 한기총 등을 중심으로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 "중부지역 평화 우리가 만든다!"

최근 교회 내 분쟁으로 총회는 물론 사회법정까지 시끄러워지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사건이 발생한 초기 시점에서 갈등을 좀 더 평화적으로 지혜롭게 해결한다면 어떨까? 총회 사회봉사부 주최 평화 만들기 지도자 워크숍이 지역으로서는 처음으로 지난 9~10일 대전 유성 계룡 스파텔 을지홀에서 개최돼 중부지역 교회들의 많은 관심을 모았다.

총회 교회화평위원회 위원 및 중부지역교회협의회(회장:이상진) 산하 노회에서 추천한 목회자 약 30명이 참석한 이번 워크숍은 불신이나 오해로 빚어지는 갈등 해결법을 몸소 체득할 수 있도록 딱딱한 강의가 아닌 체험형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참가자들은 크레용으로 그리고 종이를 찢어 붙이는 한편 상황극, 게임 등으로 갈등 해결법을 배웠다. 각 교회에서 일어나는 갈등의 원인들을 분석한 뒤 상황을 보다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먼저 도화지에 '갈등지도'를 그렸다. 지도를 보며 당사자들간의 관계와 권력의 소재 등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갈등 해결을 위해 언제 개입할 것인지, 어떤 행동을 취할 것인지 등을 논의했다. 또한 잘못된 의사소통으로 불러일으킬 수 있는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듣기 △느낌 표현하기 △상대의 느낌 듣기 △부탁하기 등의 대화법도 익혔다. 참여자 중심으로 진행된 이번 워크숍의 주목적은 갈등 해소에 대한 답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교회 내 일어난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창조적 답을 얻을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 "화해와 평화형성은 교회의 선택사항이 아니라 명령"이라는 전문가들의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워크숍은 지역 노회가 주최가 되어 평화의 길을 모색하고자 했다는 것에 의미가 크다.

대전서노회 사회봉사부 총무 소종영목사(정림종합사회복지관 관장)는 "순간마다 평화를 깨는 일이 발생하지만 이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겨내는지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됐다"면서 "더 많은 교역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워크숍을 노회 안으로 확대할 예정"이라며 많은 노회들의 참여를 독려했다.

## 태백 가뭄 지원, 교회가 나선다.

강원지역 가뭄 피해가 확산되며 태백을 비롯한 인근 지역 주민들이 물부족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총회 및 교회, 기독교시민단체들의 손길이 현지에 답지하고 있다. 총회 사회봉사부(총무: 이승열)는 우선 지난 2일 강원지역 노회에 5백만원을 긴급 지원했다. 평년보다 30% 줄어든 강수량으로 지난해 9월 이후부터 가뭄이 지속되고 있어 생활용수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현지 목회자들의 제보에 따른 것이다. 총회 사회봉사부 산하 강원남부지역 사회선교협의회장 이상진목사(황지중앙교회)에 따르면 태백시만 해도 1일 평균 4만 톤의 물을 필요로 하는데 수자원공사가 2만 톤의 물을 지원하고 있고 이중 1만 톤은 인근 리조트로, 나머지 1만 톤은 태백 지역으로 지원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주민들에게 공급되는 1만 톤마저도 배수관 낙후로 절반 가까운 물이 누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목사는 "화장실 등의 생활용수와 난방기기를 가동하는 데 필요한 물이 부족해 일상생활이 어려운 지경"이라며 "하루 3시간 제한급수로 물이 나오지 않는 시간이 길어지며 정수기 사용도 어려워 식수 지원이 시급하다"고 현지 상황을 전했다. 특히 수압이 약한 태백 황지 장성 철암지역의 고지대 주민들이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한국교회봉사단(대표회장:김삼환 단장:오정현)은 태백시 기독교교회협의회(회장:전정호)와 '태백지역 가뭄극복 기독교대책위원회'를 꾸려 1억원 모금에 나섰다. 또 지난 19일에는 본교단 총회장 김삼환 목사(명성교회)와 한국기독교사회복지협의회장 손인웅목사(덕수교회) 등이 참석한 가운데 철암과 장성 현지주민 1천여 가정에 생수 11톤(2ℓ 6천9

백12병)을 전달했다. 봉사단은 장마가 시작되는 6월 중순까지 3개월간 매주 목요일을 '한국교회가 함께하는 물의 날'로 정해 현지주민에게 식수를 제공할 계획이다.

온누리교회(하용조목사 시무) 또한 매주 2리터들이 생수 8천병을 21일부터 5월 2일까지 8주간 지원한다. 이를 위해 매주 청년대학부를 중심으로 현지에서 자원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국기독교연합봉사단(대표:조현삼)도 6일 태백지역에 생수 27톤을 지원했고, 현재 '태백가뭄 물보내기' 후원운동을 진행 중이다. 태백 현지 교회들은 이렇게 지원된 식수를 저소득 가정에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나 물 저장 공간이 부족해 배분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상진목사는 "식수로 이용하기 위해 낙동강의 발원지인 황지연못의 물까지 급수차가 물을 퍼담아 나르고 있는 실정"이라고 상황을 전하며 "제한급수를 실시하기 때문에 각 교회마다 물 2톤을 저장할 수 있는 저장통도 시급히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현지 목회자들은 서해안 살리기에 앞장섰던 한국교회가 가뭄해결을 위한 기도와 목마른 피해지역 주민들을 위한 생수지원에도 다시 한 번 나서줄 것을 호소하고 있다.

## 목회자의 불안, 이유를 묻는다

총회 국내선교부(부장:김수읍 총무:진방주)가 목회자의 목회활동을 돕는 다양한 워크숍을 준비하고 있다. 오는 3월30-31일 경기도 가평 소재 가락재영성원(원장:정광일)에서 개최되는 기도훈련 워크숍은 최근 큰 관심을 모은 바 있는 관상기도를 비롯해 영성을 돕는 기도훈련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된다. 천주교회의 전유물처럼 여겨지던 관상기도(觀想祈禱)와 '렉시오 디비나(거룩한 독서)' 등 기독교 역사에서 나타났던 다양한 기도훈련의 이론과 실재를 살펴보고 워크숍을 통해 목회 현장에 실천적으로 적용하는 방향을 제시한다.

△기도훈련의 역사와 개괄/ 최승기교수(호신대)  
△관상기도의 이론과 실제/유해룡교수(장신대) 렉시오 디비나의 실제/오방식교수(장신대) △영성목회 사례 소개/최성림목사(새길교회) △향심기도와 관상의 실제/정광일원장(가락재영성원) △기도와

영적지도의 실제/임상필교수(서울장신대) 등의 강의가 진행된다.

기도훈련에 이어 국내선교부는 불안을 주제로 하는 워크숍도 진행한다. 목회자 부인인 정신과 전문의가 보는 목회사역에서의 불안 문제를 비롯해 목사가 보는 목회자의 불안 등 경제적 어려움과 목회자의 자기통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야기되는 불안의 문제가 다뤄질 예정이다. 오는 5월4일 한국교회백주년기념관에서 개최된다.

## 이주노동자 지원 재단 설립 "절실"

총회 국내선교부(부장:김수읍 총무:진방주)가 한국과 인도네시아간 이주노동자 지원을 논의하는 재단 설립이 절실한 것으로 보고됐다.

국내선교부는 지난 2월16~21일 한국에 노동자를 송출하는 인도네시아를 방문해 인도네시아 정부와 NGO 등 관계들을 잇따라 만났다. 이명선목사(제천명락교회) 등 국내 외국인노동자선교 관계자들은 인도네시아 노동성 외국인근로자 배치 및 보호국 국장을 비롯해 NGO 대표 등과 함께 면담하고 송출과정에서 발생하는 비리를 근절하고 송출전 사전교육과 귀환이후 사후관리를 담당하는 재단 설립의 필요성에 공감했다고 총회 관계자가 밝혔다. 현재 인도네시아에서 한국으로 나오는 노동자들은 정부가 정한 기준보다 더 많은 커미션을 내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국내선교부와 인도네시아 노동성은 이같은 문제 해결에 양국 교회가 협력하자는데 의견이 일치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방문에는 한성도(대영교회) 김규복(빈들교회) 성명옥(광주결혼이미자지원센터) 하여라(엘림해외선교회) 원형은(부산기독교이주노동자상담센터) 남윤희목사(국내선교부) 등 7명의 목회자가 참석했다. 총회 국내선교부는 지난해 베트남을 방문하는 등 국내에 들어오는 외국인노동자 송출국가를 차례로 방문해 협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 [총회·연합회·교계소식]은 한국기독교공보(<http://www.kidokongbo.com/>)를 참고하였습니다.



# 복춘우물가

2009년 4월호 · 통권 제190호

발행처 : 대한예수교장로회 안동교회

발행인 : 황 영 태

편집인 : 안 중 혁

발행일 : 2009년 4월 5일